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과 함께 순모임 자료입니다.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3/31)	다음 주(4/7)	4/14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강진 서리집사	박철호 서리집사	이강진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이빛나 성도	이윤경 성도	하유미 성도
성경 봉독		오숙현 성도	이미정 성도	이빛나 성도
식사 준비		장윤경	이윤경 순	오숙현 순
정리		김윤기	오숙현 순	이강진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제6권 13호 2019.3.31.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예 배 부 름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송 영	찬송가 3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62장, 찬송가 301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11편	오	숙	현 성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사 39:1-8	김	윤	기 목사

[히스기야의 실패담]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542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강	진 서리집사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이빛나 성도
 본 문: 롬 3:23-28
 설 교: 오직 믿음(2)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13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사무엘상 22장 1-2절
 설 교: 아들람 굴로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00분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 주일 오전10시30분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신앙도서강독	주일 오후모임 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13주일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4문. 우리는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 말씀 요약: 사 39:1-8, 히스기야의 실패담

1. 히스기야의 실패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길에서 탈선합니다.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의 회복 소식을 듣고 므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습니다(1절). 히스기야는 큰 나라에서 온 사신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모든 창고와 무기고를 열어 모두 보여줍니다(2절). 역대하에서는 이를 가리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대하 32:25). 동맹을 위해 했던 행동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 물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빼고(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없음),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답을 합니다(3절).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모든 것을 “다” 보였습니다(4절).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6절). 다만 히스기야는 회개함으로 벌이 유예됩니다(8절; 대하 32:26).

2. 믿음의 삶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삶의 방식으로 취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히스기야는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본으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안내해주는 다리일 뿐이었습니다. 신자들도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에 둘 때가 있습니다(고전 1:12,13). 성경은 그런 잘못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고전 1:30,31).

또한 믿음은 어느 순간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교훈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응답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롬 6:4). 믿음의 삶의 방식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1)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2) 우리 일상과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리 공부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3) 살아야 합니다. 살아보려고 애쓸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